아픈 우리 문화재 수난사 망라하다

경북도 등 문화재 수난일지 · 사찰재산대장 집성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도난 · 반출되고 훼손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백서들이 발간됐다.

경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최근 〈구한말 · 일제강점기 경상도 지역의 문화재 수난일지〉(이하 문화재 수난일지)를 발간했다.

〈문화재 수난일지〉는 말 그대로 경상도 지역의 문화재가 어떻게 일제에 의해 도난 · 반출 · 훼손됐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일종의 백서다. 근대 시기의 우리 문화재의 수난사는 1879년부터 1945년까지 반세기 이상이 이어진다. 그 양도 많아 백서가 부록을 포함해 1247쪽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우리 문화재 수난사를 30년 동안 연구한 정규홍 씨는 대표 저자로 참여해 각종 문헌과 신문 · 잡지 · 박람회 전시 목록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수난의 근거로 제시해 역사적 사실들을 확보했다.

백서에 기록된 첫 불교 성보문화재 수난 기록은 1903년 불국사 다보탑석사자상의 반출이다. 본래 불국사 다보탑석사자상은 4구가 안치돼 있었으나, 현재는 1구밖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의 동양미술사학자인 세키노 타다시(関野貞)은 1902년 4구에 돌사자가 있었음을 증언했으나 다시 찾았던 1909년 2구가 사라졌음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당나라 식의 분황사 석사자와 함께 당시 양식을 대표하는 귀중한 표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비교적 완전한 2구는 일본인이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당시 기록들을 분석해 다보탑의 돌사자상이 1902년 이전 1구가 사라졌고, 남아있던 1~2구는 1903년 일본으로 반출됐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박물관으로 팔려가거나, 어떤 1구는 일본 우에노 서양헌 정원에 1935년까지 있었음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 훼손도 이어졌다. 1918년에 일제 총독부는 부석사 조사당과 무량수전을 수리했다. 조사당의 경우 흙벽으로 된 조사당 외벽을 회를 섞어 표면을 고르게 하자 사람들의 낙서판이 돼 버렸다. 무량수전의 경우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 일제는 수리를 하며 무량수전 외벽에 그려진 벽화들을 모두 노란색으로 칠해버렸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귀중한 불교 벽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일본군에 의해 천주사 · 도성암 · 낙사암 · 동암 · 청곡사 · 각화사 · 비로사 등이 방화 · 소실됐으며, 안국사 · 청계사 등이 몰소 됐다.

백서에 기록된 수난일지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별로 그 유형들을 파악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일본인의 이주와 함께 문화재 조사들이 이뤄진다. 조사와 발굴들이 진행되며 문화재 도난과 훼손들이 나타나며 일본에 반출되기 시작한다. 반출된 문화재는 일종의 박람회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1~1943년에는 일본의 총동원령에 의해 사찰 · 유림 등에서 불구와 제기 등을 헌납하는 사례로 나타난다.



경상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이 간행한 〈구한말 · 일제강점기 경상도 지역의 문화재 수난일지〉와 두 기관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발간한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 두 책 모두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 문화재의 수난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1879~1945년 일제강점기 당시
경상도 지역 문화재 피해 정리
경주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 도난
영주 부석사 조사전 외벽 낙서 등
성보 반출 · 훼손 경위 파악 가능

정규홍 씨는 "구한말 이후 우리가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서구 열강에서 건너온 선교사나 공사관, 통역관들에 의한 반출이 상당했다"면서 "가장 큰 피해는 개항 이래 한국에 건너온 일본인들에 의한 약탈 행위로 이들은 사찰과 사지에 면면히 존속돼 온 불상 · 석조물들을 무단 방출하고 훼손 · 변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발간한 〈일제강점기 경북사찰대장 집성 上〉도 주목할 만 하다. 이는 20세기 전반 개발 사찰에서 정리한 재산대장과 귀중품 목록, 조선총독부 관보에 수록된 재산목록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사찰에 어떤 성보문화재가 봉안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다.

이를 통해 일제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 현대에 걸쳐 각 사찰 성보들의 명칭과 수량들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적요란에 조성연대와 작가가 기록돼 문화재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한국불교문화재는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중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책의 발간을 통해 사찰에서 유출되고 도난당한 불교문화재가 한 점이라도 사찰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정왕후 발원 '회암사 약사삼존도' 보물 지정

문화재청 지정 공고… 조선시대 불교조각 등 3건도


조선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을 위해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보물 제2012호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6세기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 명 약사여래삼존도와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등 조선 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 · 조선 시대 불교경전 등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보물 제2012호로 지정된 '회암사' 명 약사여래삼존도는 1565년(명종 20년) 중종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아들인 명종(明宗)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 회암사의 중창에 맞춰 조성된 것이다.

회암사의 대대적인 불화 조성을 추진한 문정왕후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왕실 여성이자 많은 불사(佛事)를 추진한 불교 후원자였다. 회암사는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은 승려 보우의 활동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하다 쇠퇴해 19세기 초 폐사지가 됐다. 현재 '회암사지'는 사적 제128호로 지정돼 있다.

이 불화는 가운데 본존인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월광보살(月光菩薩) · 오른쪽에 일광보살(日光菩薩)을 배치한 간략한 구도로, 금니로 그려 매우 화려하고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준다. 주존불과 보살 간에 엄격한 위계를 두어 고려불화의 전통을 따랐고 갸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등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돼 있다.

당시 제작된 총 400점의 불화는 대부분 흩어져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 총 6점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사여래삼존도' 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회암사' 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조선 시대 최대 규모 왕실 불사 회암사에서 제작한 역사적, 불교사적으로 상징성이 높다"며 "조선 전기 왕실불교 부흥에 영향을 끼친 왕실 여성들의 활동과 궁중화원이 제작한 불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보물 제2011호로 지정됐다.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은 1565년(명종 20년)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 시왕, 판관과 사자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단위 불상군이다.

이밖에도 고려 공민왕대에 간행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은 보물 제875-3호에, 조선 초에 인출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은 보물 제1543-2호에 각각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직지사 성보문화재 디지털화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 직지사 업무협약 체결

50여 말사 · 성보박물관 등
소장 고문헌 조사 진행

직지사와 본말사 등에 소장된 성보문화재가 디지털화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직지사와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직지사 성보박물관과 50여 말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 고문헌을 정밀 조사하게 된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은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국보 제208호), 김룡사 사인비구주조 동종(보물 제11-2호),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319호) 등 수천 점이 넘는 성보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념미타도량참법(보물 제1241호)', '백지금니금강(白紙金泥金剛) 및 보문발원(普門發願)사경(보물 제1303호)', '묘법연화경(보물 제1306호)' 등 귀중한 경전이 포함돼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직지사 소장 문헌은 5천만화소의 고해상도로 촬영해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을 통해서 서지 및 이미지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ABC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BC사업은 고문헌에 대한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출판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및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직지사는 구랍 27일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대고려전 보고, 전문가 강연도 듣고

2월 14일까지 진행… 박동춘 소장 '고려 제다' 등

지난해 12월 4일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의 고려 건국 1100주년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과 연계된 전문가 초청 강연이 마련됐다.

오는 2월 14일까지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문가 초청 강연은 지난해 12월 20일 고려불화와 불복장 관련 강연을 시작으로 총 4회 진행된다.

1월 10일 열린 2회 강연에는 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고려시대 직물과 문양'을, 채해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고려시대의 금속공예'를 강의했다.

1월 24일 제3회 강연은 데라시마 노리히토 일본 오쓰시역사박물관 학예원의 '오쓰시와 한반도-고대부터 이어진 친밀한 관계',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대고려 특별전의 기획과 구성'이 진행된다.

오는 2월 14일에는 박동춘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의 '고려시대 제다와 탕법', 이현숙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 전문경력관의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연출과 디자인'이 강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 연계 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사전 예약 필요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224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